논어 19편 자장 5장 · 원문·풀이

子夏曰：「日知其所亡，月無忘其所能，可謂好學也已矣。」

독음 · 자하왈 일지기소무 월무망기소능 가위호학야이의

쉬운 풀이(요약) · 날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알고 달마다 익힌 것을 잊지 않으면 배움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夏 여름 하 하 / 曰 가로 왈 / 日 날 일 일

知 알 지 / 其 그 기 / 所 바 소 소 / 亡 망할 망 망

月 달 월 월 / 無 없을 무 무 / 忘 잊을 망 망 / 能 능할 능 능

可 옳을 가 가 / 謂 고할 위 위 / 好 좋을 호 / 學 배울 학

也 어조사 야 / 已 이미 이 이 / 矣 어조사 의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